# 국민의당 "3無 공천으로 3大 과제 실현"

〈무기득권·무계파·무패권〉

〈정권·야당·인물 교체〉

# 선대위 출범…이상돈・김영환 추가 5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 선임…현역 컷오프 등 지도부 온도차

국민의당이 23일 선거대책위를 출범시

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. 국민의당은 무기특권·무계파·무패권 의 '3무(無)공천' 원칙을 선언하는 등 공천 몸살을 앓고 있는 새누리당, 더불어민주 당(이하 더민주)과의 차별화에 나섰다.

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선 대위 첫 회의를 열고 전열을 정비했다. 우 선 '안철수-천정배-김한길' 트로이카에 이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영환 의원이 추가된 5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 를 꾸렸다.

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

성격에 대해 ▲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 가 ▲야권을 재구성하는 야권교체 ▲경제 적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 련하는 민생선거 등 3가지로 규정했다. 김 위원장은 "공정한 공천을 위해 무기득권· 무계파·무패권의 '3무(無)공천'을 실천하 겠다. 계파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천 은 절대로 없다"며 "안철수, 천정배, 김한 길도 예외가 아니다"고강조했다.

안철수 공동대표는 "국민의당은 호남, 수도권, 충청, 영남 출신의 대선후보가 경 쟁하는 정당, 진보·보수·중도를 대변하는 대선후보가 경쟁하는 정당이 될 것"이라 며 "이제 국민이 집권 가능한 대안을 갖게 됐다"고 말했다.

천정배 공동대표도 "정권교체, 야당교 체, 인물교체라는 3가지 교체가 우리의 시 대적 과제"라며 "야당 교체를 이뤄내고 새로운 좋은 인물들을 대거 진출 시키겠 다"고 말했다.

지난 19일 전주 덕진 출마를 공식 선언 한 정동영 전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후 처 음으로 당 회의에 참석, "4·13 정치혁명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"며 "더민주에 대 해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만 아직 온도가 좀 미지근하다. 국민의당 이 무엇을 할지 더 다가가야 한다"고 쓴소 리를 했다.

국민의당은 또 이날 공직후보자격심사 위원장(자격심사위원장) 및 윤리위원장으

로 영입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공천위 원장으로 선임했다.

전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이날 당 대변 인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급하게 번복하는 한때 혼선을 빚었었다.

여기에 더민주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 여부와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 등을 놓고 도 '투톱'간의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어 향 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. 실제로 천 대표 는 "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사람이냐, 패권 과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냐는 따져볼 필 요가 있다"며 더민주 공천 탈락자들에 대 한 선별적 영입 방침을 시사한 반면, 안 대 표는 "아직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"고 선을 그었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# 새누리 공천 부적격자 선별 대표도 예외 없는 면접심사 사전여론조사 범위놓고 이견

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 (이하 공관위)는 지난 22일 단수 신청 지 역과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구를 제외한 58개 수도권 지역의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23일엔 이들 지역구 에 대한 축조심사를 했다. 또 24일에는 충 청권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이어갈 예정이다.

1차 축조심사를 통해 법률적 기준에 의 한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, ARS 사전여론 조사 결과와 면접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▲우선추천지역 ▲단수추천지역 ▲경선 대상지역 등의 선정 기준을 정리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.

한편, 공관위에서는 자격심사의 주요 기준이 되는 사전여론조사 실시 대상 범 위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. 면접심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현 역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도 사전 여론조 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,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경선 후보자를 압축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.

이번 20대 총선 면접 심사에서 가장 눈 에 띄는 점은 현역 의원들도 예외없이 면 접심사 대상이라는 점이다. 과거에는 시 간상, 관례상의 이유로 현역 의원을 면접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대체했다. 일종의 '현 역 프리미엄'이었던 셈이다. 과거와 달리 이번 공천 면접 심사에 현역 의원을 포함 하는 방안은 이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

#### │*(*入) 4·13 총선 현장

## "대한항공 광주~김포 운항 중단 후속책 마련하라"

#### 지역 정치권 한목소리

대한항공의 광주~김포 노선 운항 중 단 계획〈광주일보 23일자 1면〉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.

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(국민의 당·광주 광산갑)은 23일 보도자료를 통 해 "오는 8월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KTX 운행편수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최소한 그때까지라도 항공편이 현행대 로 유지되어야 하고, 그 이후 변화된 교 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민 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한다"고 밝혔다.

김 의원은 이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 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 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.

국민의당 권은희(광주 광산을) 의원 도 이날 논평을 통해 "항공수요 격감으 로 인한 노선의 감평과 폐쇄는 예견됐지 만, 의견수렴이 무시됐다"면서 "이번 결 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뒷전으로 밀려서 는 안된다"고 지적했다.

더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 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"KTX 개통 에 따른 대한항공 김포~광주 노선 폐지 는 예견된 수순이었다"면서 "이제 정치 권이 소신을 갖고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







"광주시 가 광주 공항의 기능을 전남의 무안공

항에 넘

를 서둘

러야한

다 "고

주장했

그는

다.

겨주고 전남이 인구밀집지역과 떨어진 곳에 군 공항을 수용해야한다"면서 "일 부 반대론에 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할 게 아니라, 광주시와 전남도 뿐만아니라 지역정치권이 나서 대안 논의를 위한 협 상테이블을 신속히 준비해야한다"고 촉

더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을 예비후 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"대한항공이 적 자 때문에 노선 중단 방침은 이해할 수 있지만, 국적 항공사는 수익성도 중요하 지만,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책무 도 져야 한다"면서 "광주시와 국토교통 부는 시민불편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조 속히 강구해야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### 국민의당 김재두 광주 서구 갑 출마 선언

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은 23일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 다. 김 대변인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 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서구 지역 을 지식정보의 메카로 키워나가겠다"는 포부를 밝혔다.

그는 "국회도서관에서 2년간 근무했 던 경험을 살려 국회에 진출하면 제1호 법안으로 국회도서관법을 정비하겠다" 며 "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 거점 기능



의 확대를 통해 호남지 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" 고 말했다. 이어 "새로 운 지식과 정보, 문화 를 창조할 수 있도록

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조성하겠다" 며 "서구와 광주가 21세기 창의 교육의 거대한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"고 밝혔

# "수서발 호남KTX 운행 편수 늘려야"

#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

국민의당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 는 23일 "SR고속열차(SRT)인 '수서발' 호남KTX 운행편수가 경부선에 비해 턱없이 적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우려된 다"고 지적했다.

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"오는 2016년 호남선(수서역~목포역) KTX 운행편수는 주말 1일 기준으로 모



▶ 교육일시 : 2016년 3월 10일(목) 개강

혜택: 한 교회에서 두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% 할인

두 18회 운영되고, 2017년부터는 20회 증 차할 계획이지만, 같은 노선을 사용하는 경부 선(수서~부산역)의 경우 모두 34회에 달하

며 여기에 2017년에는 36회로 늘어나 '지역적 교통 격차'가 있다"면서 호남선 구간 운행 증편을 촉구했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

정의당 호남 3석 확보 기원 연날리기

연을 날리고 있다.

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(왼쪽 두번째)가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사 거리에서 호남권 민생당사 발대식을 열고 호남권 3석 확보를 다짐하며 3개의

# "두野 현실 안주…정권교체 위해 야권연대 다시 하자"

# 정의당 심상정 대표 광주서 기자회견 버스 당사 발대식 · 20개 호남 공약 발표

민의 의지는 정권교체에 있다"며 "여소야 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필 수적인 만큼 2월말이나 3월초 (야권연대 를)다시 제안하겠다"고 밝혔다.

심 대표는 호남권 출마 예비후보 10여명 과 함께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 층 브리핑룸에서 '정의당 20대 총선 호남 권 공약'을 발표했다.

그는 "이달말, 다음달초 각 정당에서 후 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민생과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다시 제안하고 삼

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3일 "호남 고초려해서 야권승리의 길을 개척하겠다"

그러면서 "작은 당은 애가 탄다"며 "정 권교체를 하려면 총선승리가 필수적인데 두 야당(더불어민주당·국민의당)은 현상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"고 비난했다.

심 대표는 "최근 안보 정국으로 좀 올라 가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만큼 20대 총선이야말로 야 권이 힘을 합치면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 는 절호의 기회"라며 "중차대한 때 현상 유지, 100석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 는 야당 지도자는 정권교체를 말할 자격이 없다"고 지적했다. 그는 "국민의당에 대 해서는 혁신 대상 인사를 끌어안고 새정치 를 말하는 이율배반에, 머지않아 유권자 들이 판단을 내리고 더민주도 급한 대로 비상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근본적으로 정 권교체를 이룰 변화를 주도하느냐에는 회 의적인 평가가 나올 것"이라며 정의당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.

정의당은 제조업이 강한 호남, 세계적 민주·인권도시 호남, 탈핵·생태·문화 호 남,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호남 등 4대 분 야 20개 호남 공약도 발표했다.

기자회견 후에는 버스로 찾아가는 '이 동 특별당사' 발대식을 열어 호남 민심 탐 방에 들어갔다. /최권일기자 cki@

# 알려졌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원\_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

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

#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

래 -

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시**: 2016년 3월 11일 (금) 16:00

장소: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(중동, 해운빌딩 5층) 본사 회의실

3. 보고사항

가. 영업보고

나. 감사보고

#### 4. 회의목적사항

제1호 의안 : 제28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
제3호 의안 : 임원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: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

#### 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2월 24일

# 광양선박주식회사

대표이사 박 용(직인생략)



광신대학교

KWANGSHIN UNIVERSITY